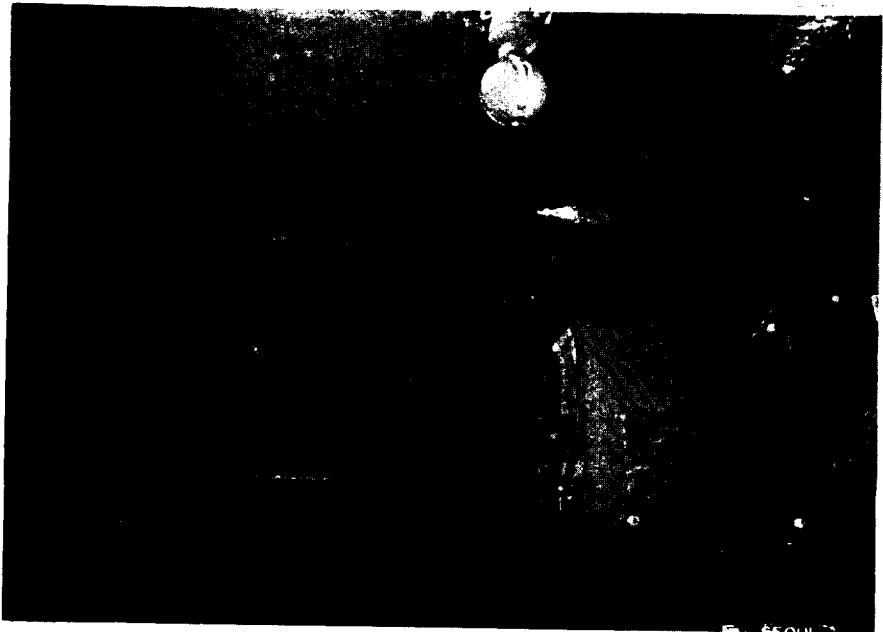


特殊建物 火災現況

1. 강동 아파트

- 소재지: 서울 특별시
- 화재 발생일: 1982. 5. 25
- 용도: 공동 주택
- 피해액: 300 만 원 추정
- 화재 원인: 석유 곤로 취급부주의
- 발화 장소: 주방
- 피해면적: 발화 세대의 2/3 정도 소실 및 직상층 등 인접 세대의 경미한 피해
- 소화작업: 출동 소방차(6대)에 의하여 진화
- 평가: 화재 원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석유 곤로에 불이 켜져 가열된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가 화재를 일으켰고,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火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미흡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각세대 주방에 설치된 파이프 닥트에 철문이 설치되었으나 시건 장치 불량 등으로 火災壓力(風壓)에 의하여 직하층의 철문은 떨어져 나갔고, 직상부의 2개층이 火氣에 의한 피해를 입는 등 수직 닥트의 방화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케 한다.



내부에서 본 출입구(열기에 의하여 변모한 도어체크 및 트랜스)

2. 강산 백화점

- 소재지: 대구 직할시
- 화재 발생일: 1982. 3. 25
- 용도: 시장(육내. 판매장)
- 피해액: 10, 790, 750 원
- 화재 원인: 인접 건물로부터 창문을 통하여 延燒
- 발화장소: 인접건물 1층
- 피해면적: 1층, 3층 약30평 및 외벽 약 40평 소손
- 화재 발견: 인근 주민
- 소화작업: 소방차 8대 출동하여 연소 방지에 치중하며 진화
- 평가: 3층 창문에 방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인접 목조 2층 건물로부터 연소되었으며, 또한 관계자 등의 평소의 교육·훈련 부재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전의 활용 등, 현황 대처가 극히 미흡하였다. 다만, 2층 창문이 내화 구조로 밀폐되었고 연소된 부분의 간벽이 양호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재 건물과 연소된 건물의 외관」



「연소된 건물의 내부 소손 상태」

3. 금하 紡織(株)

- 소재지: 대전시
- 화재 발생일: 1982. 4. 18
- 용도: 공장

- 피 해 액 : 미상(소면실 전소, 소면기 및 야적 원면 소실 등)
- 화 재 원 인 : 전기 누전 혹은 전기 스파크로 추정
- 발 화 지 점 : 소면 원조 공장의 소면실
- 화 재 발 견 : 여공원이 소면 원조 공장에서 작업중 천정에서 파란 불꽃이 튀며 원면에 인화하는 것을 발견
- 소 화 작 업 : 소방차 19대 출동 진화
- 문 제 점 : 안전 점검시 지적사항(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미개수, 특히 조명기구 등에 쌓인 섬유 분진 제거요구의 불이행이 화재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점, 출동한 소방차에 소화 용수 공급이 어려웠던점(수원부족) 등으로 불 때 건물 관계자의 방화에 대한 인식 부족, 건물 관리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협회의 점검 보고서 내용〉

1. 소방 시설 분야

- 가. 옥내·외소화전의 방수 압력, 방수량의 규정 미달
- 나. 공장동 및 기숙사동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시설 및 작동 상태 불량
- 다. 소화용수 설비의 부족

2. 건축 분야

- 가. 공장동의 격벽 미설치 및 각 변전실의 방화 구획 상태 불량

〈참고 사항〉

- “본공장 내 조명 기구 등에 쌓인 분진 제거 필요함” 의 9개항.



「梳綿室의 기계 소손 상황」



「낙면 참고」